

“한나라당 국민 기만·국가 위기 초래”

송훈석 국회의원 지난 11일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 … 함명준·김진 군의원 동반입당

3선의 송훈석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이 지난 3년간의 무소속 활동을 접고 민주당에 전격 입당했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 민주당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발표한 ‘민주당 입당을 선언하며’란 제목의 입당 회견문에서 “저는 오늘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의 당선과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 입당을 결정했다”며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사회복지에 가장 많이 헌신해 온 정당”이라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민주당은 과거 10년간 집권하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남북화해를 이끌어 내고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하

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어 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서며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매우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 한나라당 정권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정권은 없었다”며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국가에 총체적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서민들은 못살게 굴고 부자들만 잘살게 하는 한나라당 정권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며 “저는 이와같은 위기로 부터 국가를 구할 수 있는 정당은 오직 민주당 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했다.

송 의원은 “한나라당 정권으로부터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강원도를 살려내고 이광재 전 지사의



지난 13일 오전 11시 민주당 양양군 정당사무소에서 김양수 강원도의원, 함명준 고성군의원, 김진 고성군의원 등 3명이 민주당 입당기자회견을 가졌다.

뜻을 이어갈 수 있는 확실한 후보는 최문순 민주당 후보라고 판단하여 최문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기필코 승리해 국

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했다.

한편 송훈석 국회의원의 민주당 입당에 이어 지난 13일 김양

수 강원도의원, 함명준 고성군의원, 김진 고성군의원 등 3명이 민주당에 동반 입당했다.

최광호 기자

“민주당은 철새의 도래지인가”

한나라당 강원도당 송의원 입당 비판 성명서 발표… “낮부끄러운 일”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지난 12일 ‘철새 영입 자랑하는 민주당은 정녕 철새의 도래지인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송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도당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대표적 철새인 송훈석 의원을 영입했다고 자랑하는 낮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며 “송 의원은 1996년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로 당적

을 옮기고, 다시 2008년에는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이번에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 철새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도당은 “그런 철새의원 영입을 자랑하는 것을 보니,

역시 민주당은 대표부터 철새인 ‘철새 도래지’로서 손색이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은 대표, 국회의원, 기초의원 모든 곳에 철새가 분포되어 있어 사상 유래없는 ‘정치 철새 도래지’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고 비꼬았다.

한나라당 도당은 “민주당이 정치 철새로 사람들을 채우는 건 상관없지만, 정강과 정책이 그때그때 다른 철새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며 지역주민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안타까운 것”이라며 “주민은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 먼 ‘철새 분능’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의 주인공은 지역민들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삼성카드 설계사 대모집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도전해 보세요

- ◇자 격 : 학력제한 없음
- ◇주요업무 : 삼성카드 모집 (부업, 겸업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등본
- ◇보 장 : 수당 및 급여 100~300만원 이상



속초팀 북부지역단 심미화 019-528-8879